

2021년 인천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1년 3월 22일 ~ 3월 26일까지 (5일간) 인천관광공사를 대상으로 2018년 7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28건(본처분 19건, 현지처분 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등 조치를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굴한 수범사례 9건을 공개함으로써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총괄현황			처분현황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계	본처분	현지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권고·통보	계	회수	추급
28	19	9	28	8	14	6	2/692	2/692	-

2021년 인천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인 천 광 역 시

주의요구 및 권고·통보(시정완료)

제 목 인사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관광공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제49조 및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운영사업, 도시마케팅 사업, 교육·연구·컨설팅 사업, 국제교류관련 사업, 의료관광사업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공사 「직제규정」 제8조 및 제12조제1항에 직원은 일반직 및 공무원직으로 구분하며, 일반직의 직급은 1급에서 7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 효율적인 순환보직 실시 필요

공사 「인사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1. 승진된 경우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삭제
6. 기타 고충처리 등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나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순환보직 실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0명이 동일 보직에 5년 이상 근무함에 따라 특정인의 동일 분야 장기근무에 따른 사업추진의 투명성 저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공사의 현원은 000명으로 임용 후 6개월 전보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충처리 및 기타 사유로 전보 실시한 인원은 2019년 0명, 2020년 0명이다. 또한 6개월 초과 1년 이하 근무자에 대하여 2018년 0명, 2019년 0명, 2020년 0명을 순환보직 실시하였다.

전보 외 담당업무의 변동요인으로는 “경영평가 비상설 임시조직(TFT)”을 구성하여 2018년부터 겸임 또는 전임으로 배치한 사항과 휴직 사항이 있다.

따라서 전보 외의 담당업무의 변동요인을 감안하면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전보 제한으로는 책임성 및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아울러 공개경쟁채용에 의한 인원 충원 곤란 등의 사유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 필기시험 면제 후 해당 분야의 경력자를 임용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당 분야에서 상당 기간 근무 이후 순환보직이 가능한 규정 등의 마련도 필요하다.

2. 인사 관련 용역 결과 미반영

공사 ○팀에서는 보수(임금)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 및 보수제도 개선 용역”을 실시(집행액 : 00,000천원 / 2019.8.30.~2020.3.5.)하였다. 총 5개 분야 중 전문보직제는 2년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력직 업무의 직무분야의 핵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것이었으나 용역 준공 후 1년(2021.3.25. 감사일 현재)이 경과하도록 검토보고 또는 실행의 문제점 검토 후 일부 반영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업무에 미반영하였다. 그러나 예산을 수반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발주 전 용역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발주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경력증명서 확인 및 채용분야 구분 관리 소홀

공사 「인사규정」 제9조제1항내지 제3항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 등을 가진 공사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 공개경쟁채용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
2.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필요한 자격증소지자 또는 경력소지자
3. 관련 법률 및 정부방침에 의거하여 채용하는 경우

또한 같은 규정 제12조제1항에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확정하되, “경력 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공사에서는 공사 창립(2015. 9.11.) 이후 2019년에 ○○분야 5급 0명과 △△분야 6급 0명을 채용하였고, 2020년에는 ○○분야 6급 0명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공사 ○팀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경력직 5급 A는 응시 자격 중 “기업체 등에서 동일분야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 응시하였음에도 면접 시 제출한 경력증명서 총 0개 중 ○○○○○○○유한회사 경력증명서는 소속 ○○○○○만 기재 후 담당업무가 공란이었고, △△△△△(주)의 경력증명서는 ○○○팀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담당업무 확인이 불가하였다.

또한 경력직 6급 B가 제출한 (사)□□□□□□□□□□의 경력증명서의 근무 부서는 ○○○○팀만 기재하여 구체적인 담당업무 확인 불가하였고 ◇◇◇◇◇◇◇◇◇◇협동조합의 경력증명서는 소속 ○○○○팀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경력직 6급 C가 제출한 ☆☆☆☆☆☆☆☆(주)는 소속 없이 재직 중으로 기재되어 있어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경력직으로 임용하여 채용 시 자격기준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다만 2020년 경력직 채용 공고 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요구 시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재직기간, 담당업무,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기재로 경력증명의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개선하였다.

2020년 경력직 채용 공고문 中 발췌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경력직 지원자)

- * (필수내용)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정규직-비정규직 기재
 - 정규직 비정규직사항의 경우 채용임용 시 호봉산정에 필요
-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지원서접수 마감일) 예정일 기준

아울러 공사는 ☆☆☆☆공사와 통합 이후 다시 분리하여 (구)인천관광공사·♀♀♀♀재단·♡♡♡♡♡♡재단이 통합된 현 인천관광공사를 창립(2015. 9.11.) 하였다. 당초 (구)인천관광공사는 직군이 일반직과 기술직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재단 및 ♡♡♡♡♡♡재단은 따로 직군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공사 「직제규정」 제8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직원은 일반직 및 공무원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일반직을 채용분야별(일반행정, 전시 컨벤션, 전산 등) 구분할 필요가 있다.

4. 결격사유 미조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과 인천관광공사 정관 제9조제4항에 따르면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¹⁾,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 제4항에 따르면 임용권자인 지방공단의 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록기준지 조회 / 경찰서 / 과거 경력근무지)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거 경력 해당자)
 - * 제58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
 - 제58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업무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해임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경찰서)

또한 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 제33조제1항제5호(개정 전)에 따르면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삭제(2020.12.31.)되었다.

한편 공사 ○팀은 임용예정인 임원 직위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팀-0000, 2018.11.22.)를 ○○경찰서로 하여 회신을 받았으나 등록기준지(파산선고 사실 등), 전근무지(파면 및 해임처분 등)에 대한 사항은 조회하지 않아 결격사유 조회에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 [주의] ① 용역사업 완료 후 그 결과의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활용계획 없이 방치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경력직 임용 시 증빙서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기재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를 이행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① 기 수행 완료한 인사용역결과 등을 참고하여 동일분야 장기근무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짧은 전보제한 기간운영으로 인한 책임성 및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② 특히 경력직 임용 후 해당분야에서 상당 기간 근무이후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보제한 규정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신규 도입하는 인사시스템(2021. 3.22.완료)에 직무분야를 추가하여 채용분야를 입력 가능하도록 시정완료 하였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호텔 운영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관광공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호텔의 수익성 증대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호텔운영과 예산사용의 목적 외 오·남용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텔 운영 관리지침’을 제정 및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호텔 운영관리지침(2019.12.30.) 제7조(사업비²⁾의 집행방법)에 따라 운영사³⁾는 사업비 집행 시 지급결의서,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세금계산서 등 집행내역을 정비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사업비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에 따라 운영사는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3백만 원 이상의 계약 건 또는 지출 건에 대해 관리부서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집행내역의 점검)에 따라 사업비 집행 내역을 매 익월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집행현황, 목·세목별 집행방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업비와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사업비 교부결정 취소, 사업비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위탁 제한 등의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사업비: 호텔 운영 및 자산 취득·관리 등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3) 운영사: 공사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관리 및 운영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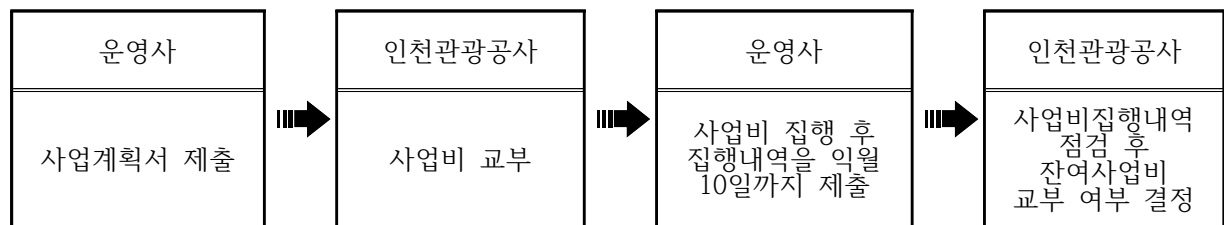
4) 관리부서: 호텔 운영위탁 사업자의 선정, 사업비의 교부,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12조(영업보고)에 따라 운영사는 익월 15일 이내에 이용인원, 매출액, 수입내역, 지출액, 추진사항, 판촉활동, 안전점검, 교육진행상황, 향후계획 등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정기 업무보고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호텔 운영위탁 계약 조건 제11조(운영사의 회계, 영업전략 등 보고)에 따라 운영사는 분기 단위로 고정자산 및 저장품 목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호텔 운영 사업비 예산 규모는 2018년 0,000백만 원, 2019년 0,000백만 원, 2020년 0,000백만 원, 2021년 0,000백만 원이며 사업비 집행 및 교부 절차는 [표]와 같다.

【표】 ○○호텔 운영 사업비 집행 및 교부 절차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감사기간동안 ○○호텔 위·수탁 관련 지도감독 사항을 확인한 결과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점검결과, 매월 제출되어야 하는 정기 업무보고서의 이용인원, 교육 진행 상황 누락, 분기별 고정자산 및 저장품 목록이 미제출 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위 사항에 대해 공사 담당자는 운영사의 사업비 집행내역이 제출되면 회계장부와 서류가 보관된 ○○호텔 현장 출장 후 집행내역 확인 및 추진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통상적인 집행내역 검토 결과 보고로 같음하고 있고, 기타 영업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간 매출 및 업무현황을 전자 메일로 수신 및 확인하여 영업 관련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사 전자문서를 확인한 결과 위·수탁기간 시작일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점검관련 출장복명서, 점검결과보고 등은 등록된 건이 없었으며 공사 「사무관리규정」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 따르면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서서명, 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제11조(문서의 전자적 처리)에 따라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 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 담당자의 의견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사는 ○○호텔 운영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시 「호텔 운영위탁 계약 조건」 및 「○○호텔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매월 제출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점검 시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사업비 집행 시 지급결의서, 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감사조서, 세금계산서 등 집행내역 관련 서류 구비, 사업비 계좌 및 신용카드사용의 투명성·적절성, 3백만 원 이상 계약 또는 지출 건에 대한 사전 승인여부, 사업비 집행 현황, 집행방법 준수 여부, 정기 업무보고서의 내용, 고정자산 및 저장품 등)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등 ○○호텔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호텔 운영과 관련된 모든 회계장부와 기록은 계약시설 내(○○호텔)에 보관하고 있고 이는 공사의 소유이므로 호텔 운영위탁 계약기간 종료일을 고려하여 보관 서류의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주의] 「호텔 운영위탁 계약 조건」 및 「○○호텔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고정자산 및 저장품 목록을 분기별로 제출받고 현장 점검 시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자체 종합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관광공사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인천관광공사 「감사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관광공사 정관」에 따라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내부감사기능을 내실화하여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감사의 직무)에 따라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관계 법령과 정관 및 기타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사장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조(감사계획 수립·실시)에 따라 당해 연도 2월 이내에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2조(감사의 종류)에 따라 공사의 주기능·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종합감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며 당해 연도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사에서는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2018년)에 따라 감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2018.12.27.)하여 자체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표 1]과 같이 연도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감사계획 및 감사 결과

연도	종합감사		특정감사	
	계획	결과	계획	결과
2019년	종합감사가 아닌 정기감사 수립 -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 시 지적된 사항 위주로 감사 진행 - 시 산하 공사 공단 및 인천시 감사실 연계 협력 감사 실시	- 감사 결과 없음	- 취약분야를 심층적으로 감사하고 문제 해결형 정책감사 - 익명신고를 통한 감사	- 자격기술수당 지급관련 특정감사 - 결과·부당수령액 환수 및 사규 개정
2020년	- 공사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 - 감사주기: 2년 - 감사대상 부서: △실	- 감사대상: △실, □단 - 감사범위: 2020.1~10월 추진업무 - 감사기간: 12.14.~12.22.	- 개인정보관리실태 특정감사 - 항공마일리지 관리현황 점검	- 개인정보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요구 - 공무국외여행자 사후 관리 관련 특정감사 결과: 출장보고서 미등록자 없음 마일리지미적립 00건
2021년	- 인천시 종합감사 * 자체 종합감사 계획 없음		- 재난·안전관리 실태 - 일반운영비 집행실태	

※ 복무감사 및 일상감사는 별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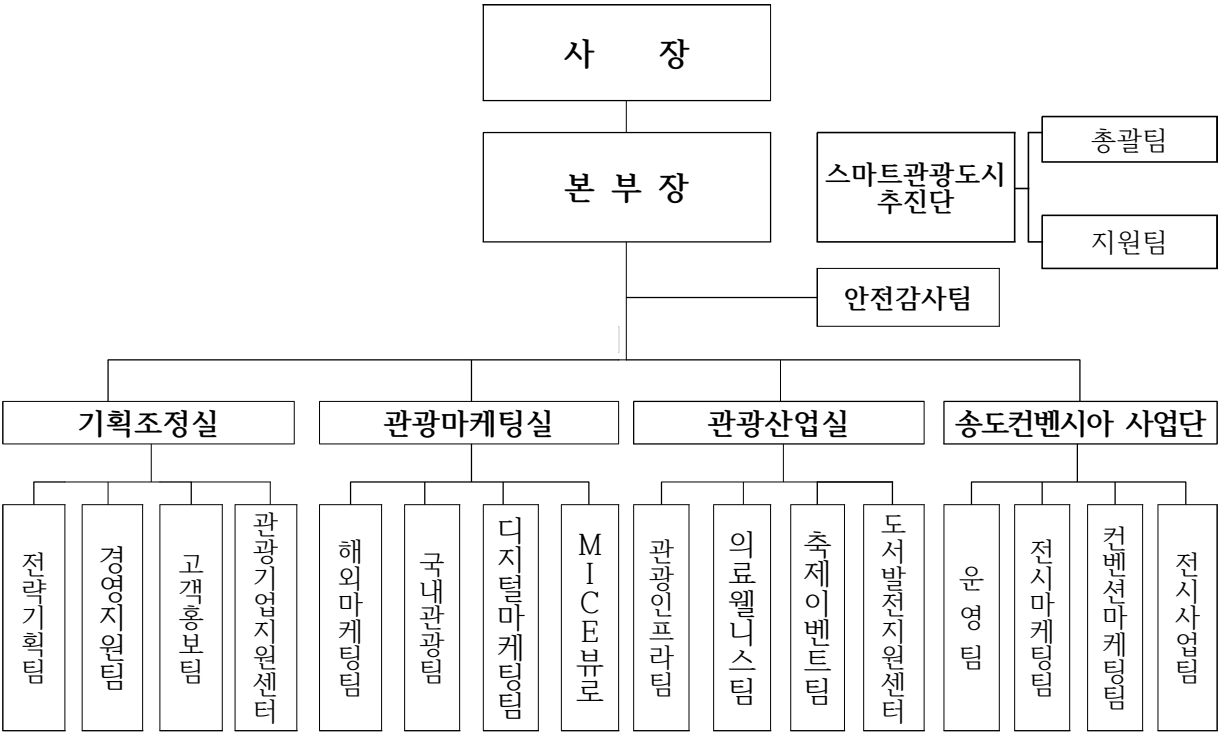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2019년도에는 외부기관의 감사계획이 없었음에도 감사계획 수립 시 종합감사가 아닌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위주로 정기감사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0년은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공사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20.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실 및 □단 2개 부서만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공사 「감사 규정 시행내규」 제2조에 따라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감사 대상 범위를 특정 기간이 아닌 2018. 7월(인천시 종합감사) 이후부터 2020. 10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어야 했다.

또한 2021년은 인천시 종합감사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당해 연도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자체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재난·안전관리 실태, 일반 운영비 집행실태 등 특정감사 2회만 감사계획에 포함하는 등 자체 종합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공사는 [표 2]의 조직형태로서 1본부(스마트관광도시 추진단) 3실(기획조정실, 관광마케팅실, 관광산업실) 1단(송도컨벤시아사업단) 전체 조직이 감사대상이며 자체 종합감사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후 연간계획에 따라 종합감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표 2】 인천관광공사 조직도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시정]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종합감사 계획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립 후 연간 감사계획과 감사 주기(2년)를 준수하여 내실 있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복무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관광공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1. 유연근무제 직원 복무관리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지방공기업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계획(행정안전부 2012.12.)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시행(2015.10월)하고 있으며 공사「취업규정」제20조(출근 및 결근)에 따라 직원은 사업시간 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업무에 임해야 하며 제21조(지각 및 조퇴)에 부서장은 지각과 조퇴를 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 시행 이후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유연근무제 운영 현황

(단위: 명)

구 분	추진근거	연도별 운영 현황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 시행계획	00	00	00	00	00	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취업규정 제17조	-	0	0	0	0	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공사에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유연 근무자를 대상으로 출퇴근 등록 여부 등 복무점검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감사기간 중 2020.1.1.~2021.3.23일까지 유연근무자를 대상으로 출·퇴근 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고 출·퇴근 미등록 및 지각, 조기퇴근 등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직원은 출·퇴근 인증을 하지 않아 출·퇴근 시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 유연근무 해제를 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유연근무자 중 출·퇴근 현황(2020.1.1.~2021.3.23.)

구 분	미등록 인원					지각 및 조기퇴근 인원		
	10회 미만	10회 이상	20회 이상	70회 이상	합계	지각	조기 퇴근	합계
2020년	00명	0명	0명	0명	00명	0명	0명	00명
2021년	00명		0명		00명	0명	0명	0명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출·퇴근 미등록과 지각 및 조기퇴근이 중복된 직원 있음)

2. 직원 출퇴근 인식방법 변경에 따른 복무 관리

공사는 무인경비시스템 미인식으로 인한 초과근무 불인정 발생 및 리더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기록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판단 및 대체 수단을 마련 권고에 따라 ‘직원 출·퇴근 인식방법 개선’ 계획을 수립(2020.1.21.) 후 직원 출퇴근 인식방법을 지문 인식기 사용에서 전자결재시스템 내 출퇴근 버튼 클릭 방식으로 변경하고 유예 기간을 두어 직원 혼란을 최소화 한 후 2020.2.1.부터 근태관리 변경을 시행하였으며 직원 출퇴근 인식방법 개선 계획에 따르면 출·퇴근 대리 체크 적발 시 인사처분 또는 징계 요구를 한다고 되어 있다.

복무 담당 부서인 ○팀에서는 직원 출·퇴근 인식 방법 개선 이후 근태관리 철저 요청 문서를 2020.8.4.(1회), 2021.3.19.(2회) 시행하여 출·퇴근 인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근무 및 근태관리 철저를 요청하였고 대리 체크 적발 시 인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복무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팀에서 코로나19 관련 특별 복무감사⁵⁾를 실시한 결과는 [표 3]와 같고 공사 감사규정 제20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시행내규 제14조(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처분요구를 하여야 하나 근태관리방법 변경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현재 노후된 PC 및 사무실 인터넷 접속의 불안정으로 출·퇴근확인 입력의 잦은 오류 발생 이유로 처분하지 않고 전 직원 대상으로 특별 복무감사 결과를 공람 및 확인하고 향후 미입력 시 처분요구 예정임을 강력하게 통지한다고 문서를 시행하였다. 그 후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복무관리 철저 및 복무점검 예정 안내 공문을 2020.8.25. 시행하였으나 실제 복무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3】 코로나19 관련 특별 복무감사 결과

구분	감사 결과
재택근무	재택근무 업무일지 미제출 없음 출·퇴근 확인 미입력 00건이나 소명자료 제출로 확인
근태관리방법 (출·퇴근 인식방법)	미입력 00명 총 000건(출근 000건, 퇴근 00건) 대리 입력 확인 없음(출근IP, 퇴근IP 동일)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이번 감사기간 중 2020.5.6.~2021.3.24.까지 전 직원 출·퇴근 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고 직원 본인의 컴퓨터가 아닌 다른 직원의 컴퓨터에서 출·퇴근 등록을 한 현황이 확인되어 직원들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한 결과 출근 시간이 촉박하여(본인 PC 부팅시간 소요) 동료 직원 PC로 출근 체크, 퇴근도중 퇴근버튼 미인증한 것을 확인하여 근무 중인 직원 PC에서 퇴근버튼 클릭, 컴퓨터 업데이트 및 오류로 동료 PC로 출근 인식 등의 이유였으나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능하다.

5) 복무감사:2020.5.12.부터 5.20.까지 재택근무 일지 및 2020.3월~4월 출·퇴근확인 입력 자료를 대상으로 8일간 실시

【표 4】 출·퇴근 등록 현황 중 컴퓨터 IP 주소 미일치 현황

인원 \ 횟수	5회 이하	10회 이하	15회 이하	25이하
00명	00명	00명	0회	0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공사는 유연근무제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직원 출·퇴근 인식 방법이 지문에서 전자결재시스템 출·퇴근 인증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문 인식과 달리 대리 입력 및 다른 컴퓨터 접속 가능성을 예상하고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않는 등 직원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주의] 직원복무관리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직원 출퇴근 인식 방법의 문제점을 검토 후 복무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유휴자금 운용 미흡

기 관 명 인천관광공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69조(여유금의 운영)에 따르면 국채·지방채 취득,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⁶⁾ 등에의 예입으로 여유 자금을 운용해야 하고 인천관광공사 「회계규정」 제32조(유휴자금의 운용)에서 사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금융기관 또는 시중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이나 금융상품에 예입하거나 기타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금융기관에의 예입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전제하에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자금운용 효율화 방안(행정안전부, 2018.8.)에 따르면 연간 자산운용계획에는 기관별 사업성격, 자금흐름 등을 고려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운용계획에는 ①목표수익률(자산배분에 앞서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의 목표치) 및 허용위험한도(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의 감소 등 불리한 결과의 수용가능성 정도) ②기준수익률, ③연간 자금수지계획, ④장·단기 자금 구분, ⑤운용기간별·상품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해야 하고 운용가능대상 명확화, 금융상품별 기준수익률 및 투자비율, 신용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능 신용등급 등을 설정해야 한다.

6) 「지방공기업법」제33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기타 금융회사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채신관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을 말함.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여유자금은 연간 00억 원 정도이며 매년 예산 및 자금 운용(안) 수립 시 자금운용 현황 및 자금운용방안을 포함하였으나 목표 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와 기준수익률은 포함하지 않았다.

2019년~2020년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00억 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예금(가입기간 1개월~3개월) 대비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였고 '20년부터는 ○○예금에 가입하였다.

가입당시 결재문서에는 투자 위험등급이 낮고 ○○예금 대비 운용 수익률이 0.00% 높기 때문에 가입한다고 되어있으나 위 상품 예상수익률은 시장 상황 및 법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감사기간 동안 공사의 지정금융기관⁷⁾ 업무 취급 약정 조건에 따른 ○○예금 이자를 검토한 결과 동일 금액을 ○○예금(3개월)에 가입했을 경우 이자액은 별 차이가 없으며 ○○예금(6개월)에 가입했다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 자금 운용에 대한 위험부담도 없었다.

결국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리가 달라지고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상품을 수익률이 높다는 사유로 운용기간 3개월로 분할 운영하였으나 약정서에 따른 금리 비교 등 수익률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자금의 속성·시기·규모 등을 고려치 않고 운용하여 6개월 이상 가능한 자금을 3개월의 짧은 기간으로 분할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허용위험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장기자금은 0개의 상품에 총 00억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들의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며, 이 상품의 수수료로 공제되는 금액을 고려한 최저보증이율은 5년 이내 0.0%와 3년 초과 0.0%이며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저보증이율은 더 떨어지며 중도해지 시 사업비 공제에 따라 원금 손실 발생의 우려도 있다.

7) 지정금융기관 : ○○은행 계약기간 19.1.1~22.12.31 (3년)

또한 상품 가입 시 지정금융기관 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른 ○○예금(1년 이상)과 비교 검토하였다면 0.00%의 이율 적용이 가능했다. 결국 복리상품으로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하였으나 수익률은 변동금리로써 당해 연도 ○○예금 재가입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상품 운용 관련하여 공사 자체적인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자금 운용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실장 전결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금운용에 따른 상품가입 시 문서에는 가입상품에 대한 이율만 표기 되어 있을 뿐 다른 상품과의 비교·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유휴자금은 확정금리형 금융상품 운용이 원칙이고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상품 기준 및 투자 위험 변화 분석, 예치한도 설정 등을 통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수익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어야 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주의] 자금운영 관련 위원회 구성 등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자금운용목적, 기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실적배당형 상품은 투자 위험 변화 분석, 예치한도 설정 등을 통해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한 후 유휴자금을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수당 중복 지급에 대한 개선 노력 미흡

기 관 명 인천관광공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1. 팀장 보직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예산을 편성·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는 「인사규정」 제6조(직급, 직위, 직책 등) 및 「복리후생규정」 제7조(복리후생비 지급)에 따라 매달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수규정」 제25조(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인 본부장, 실장, 단장 보직자에 한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직책수행비를 받는 팀장보직자(2급, 3급, 4급)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표 1]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다.

【표 1】 팀장 보직자에 대한 직책수행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2월까지	
직급		3급	4급	3급	4급	3급	4급
직책수행비							
	인원	00명	0명	00명	00명	00명	0명
	금액	00,000	0,000	00,000	00,000	0,000	0,000
초과근무수당							
	인원	00명	0명	00명	00명	00명	0명
	금액	000,000	00,000	000,000	00,000	0,000	0,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공사 「사무관리규정」 제18조(결재),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제19조(결재), 「사무전결처리 내규」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및 제5조(전결처리의 방법)에 따르면 팀장 보직자는 팀 내의 주요 업무 및 계획의 결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사무,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팀 내 소속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출장 결재를 수행하는 등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책 수행비 수령 대상인 팀장보직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2. 직책수행비와 관리업무수당 중복 지급 부적정

공사는 「보수규정」 제23조(관리업무수당) 및 「복리후생규정」 제7조(복리후생비 지급)에 따라 [표 2]와 같이 관리업무수당과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실장, 단장(2급~3급)은 비슷한 수당 성격의 직책수행비와 관리업무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

【표 2】 직책수행비 및 관리업무 수당 지급현황

구 분	근 거	지급대상	지급액		비 고
관리업무수당	보수규정 제23조	본부장(임원제외), 실장, 단장	기본급의 10%		3급 이상
직책수행비	복리후생비 규정 제7조	임원과 팀장이상의 직책을 받은 직원	사장 상임이사 실장, 단장 팀장	월1,000,000원 월700,000원 월450,000원 월200,000원	4급 이상

공사의 관리업무수당 및 직책수행비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지급근거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수당의 지급 목적은 업무수행을 위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로 직책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관리업무수당 및 직책수행비 지급목적은 유사하다고 보이며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에 대한 규정은 차이가 있고 직책에 따라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실장, 단장의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과 직책수행비가 모두 지급되어 보직에 따른 수당 지급 취지 및 형평성 문제가 있다.

3. 수당 중복 지급에 대한 개선 노력 미흡

공사는 인천시 ○과에서 실시한 인천관광공사 경영관리실태 지도점검 계획⁸⁾ (○과-00000호, 2017.11.24.) 및 경영관리실태 등 지도점검 결과 통보(○과-00000호, 2017.12.19.) 관련 관리직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2018년 9월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 ‘관리자 관리·감독업무 수행관리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하여’ 개선·통보 요구 처분 및 2018년 공사·공단 조직진단결과(△담당관-0000호, 2019.02.19.) 중복 지급된 직책수행비와 관리업무수당, 직책수행비와 시간외수당 중복 지급 보수체계 개선 요구 등을 보면 수당 중복 지급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위배 됨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제19조(감사결과의 통보)에 따라 개선요구는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집행이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약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인천시 종합감사 처분요구 조치결과(인천관광공사 △팀-000호, 18.11.19)에 추진 중으로 제출하였고 그 이후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동안 공사에서 추진한 관리·감독 업무 수행관리자에 대한 수당 중복지급 개선 추진경과 2018년 하반기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하여 인사·보수체계 종합적 검토를 위한 외부 컨설팅 추진을 협의하여 인사 및 보수제도 개선 용역(용역기간 : 2019.8.30.~2020.3.5. 계약금액 00,000천 원)과 인사 및 보수제도 개선 TFT 구성하여 진행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 내부적인 검토만 하고 있을 뿐 인천시 주무부서인 △담당관실과 ○과에 협의 등의 절차가 없었으며 수당중복 지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8년 종합감사 결과 통보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업무수당과 직책수행비 중복, 직책수행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고 있다.

8)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한 실태점검 요청으로 진행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개인별 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하고 기본적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으며 속인적 수당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기본급화하고자 할 경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줄여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시간외 근무자 등에 대해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 내부적으로는 초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기본급화, 직책수행비의 유지 등의 개선방안을 2022년부터 개편 보수 제도를 시행할 계획 중이나 감사일 현재까지 인천시와 협의된 사항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공사는 보수체계 개편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시 ○과 및 △담당관실과의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노동조합과 합의여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전제조건은 아니며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감독)에 따라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주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고 있는 팀장 보직자를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보수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관광공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전년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 기준의 범위에서 공사의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당해 공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하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통보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장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예산편성기준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편성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1. 사업예산의 지출예산 과목편성 부적정

예산편성기준의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예산기본 구조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며, 각 예산별 수입과 지출과목은 관, 항, 세항, 목, 세목(지출)으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에서는 지출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 항, 세항, 목, 세목으로 예산과목을 구분 편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사업예산에서의 지출예산을 세목에 대한 구분 없이 관, 항, 세항, 목으로만 편성하며 대행사업을 성질별로 임의의 과목코드(101, 102, 103, 104)를 부여한 하나의 “목”으로 편성하여 동일한 “목”에 편성된 대행사업 내 예산의 전용⁹⁾ 및 조정¹⁰⁾ 사용 확인이 불가능한 구조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일부 예산은 예산편성기준 상 “목”과 “세목”의 코드를 혼합한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기준 상 규정된 과목코드와 다른 과목코드나 존재하지 않는 과목코드를 부여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의 “목”과 “세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산출기초”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편성하여 “세목”을 구성하는 사업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결과 대행사업 추진과 관련한 임시직 인력 투입 비용(용역비)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면서도 예산서 상 해당 용역비를 확인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한편 2018년도 인천시 종합감사 시 대행사업비를 단일 예산과목으로 편성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2019년도 예산편성부터 대행사업비 내 예산을 구분 하였으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구분이 아닌 산출기초 상 구분 기재하는 방식으로 편성하여 2021년 본예산까지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예산과목 설정 기준과는 다른 형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공사에서는 대행사업의 경우 사업별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다수 있고, 관광 마케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 발생 등 세목관리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지출예산 구조화는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체계로서 예산액의 규모 및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이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며, 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사용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세목”까지 요청 및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지출예산 구조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9) 예산의 전용 : 동일한 “항”내의 “세항” 및 동일 “세항”내 “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10) 예산의 조정 : 동일 “목”내 “세목”간 예산을 관리자(부서의 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2. 관서운영비 편성 부적정

예산편성기준의 “지방공사·공단 관서업무비”에 따르면 관서업무비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용품 구입, 간담회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등으로 정의하며, 이 중 정원가산업무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간기준액은 전체정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예산은 본부 또는 소속기관 단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정원가산업무비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다르게 편성하여 연도별 예산액을 60천원부터 3,600천원까지 과소 편성하였다.

또한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부서업무비)는 내부직제에 반영된 과·팀 등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조기관에 한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각 부서단위로 편성하도록 하며, 매년 연도말 기준 정원수(정규직+비정규직)¹¹⁾를 기준으로 한 부서업무비 편성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부서업무비 예산을 편성하며 공사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내규」에 규정된 조직별 정원 기준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기준액을 적용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여, 연도별 직제 및 정원 기준에 따른 적정 부서업무비 편성 총액 대비 총 4,260천원에서 8,420천원의 부서업무비 예산을 과대 편성하였다.

11) 정규직 정원(정관상 정원을 의미), 비정규직 정원(비정규직 정원관리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원에 한함)

3. 예산의 전용 부적정

가. 인건비 관련 비목의 전용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동일한 “항”내의 “세항” 및 동일 “세항”내 “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장은 각 “항”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세항”간 금액을 전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용요구는 사업부서에서 세목단위로 지출예산전용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건비 관련 비목(101, 106, 107, 108목)은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기준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에 따르면 평가급의 지급시기는 경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해당 연도별 12월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사 「회계규정」 제118조에 따르면 본예산 성립 후에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공사에서는 2018. 12. 31. 인건비 전용을 승인하며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인건비의 타비목 전용금지 예외 사항 중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부족이 발생하여 관리자가 특별히 전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2018. 8월¹²⁾에 이미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상향된 결과로 통보되어 기편성된 예산액으로는 평가급 부족이 예상되었음에도 2018. 11월부터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¹³⁾에 평가급 부족분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건비목의 전용을 승인하여 평가급 부족분을 해소하였다.

12)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2017년 실적) 결과 알림(△담당관-0000, 2018.8.2.)

13)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계획 통보(□팀-0000, 2018.11.21.), 제23회 이사회 의결(2018.12.21.)을 거쳐 확정

이와 관련하여 공사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률 통보가 2018. 12. 11.에 시달되어 추경편성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성과급의 경우 인건비성으로 볼 수 있어 전용 처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은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경영평가 결과 통보된 등급에 해당하는 전년도 기준 지급률 등을 고려한 지급안을 마련한 후, 평가급 지급률 확정 통보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¹⁴⁾하는 것도 가능한 사항이며

예산편성기준 상 평가급목(218)은 인건비 관련 비목(101, 106, 107, 108목)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평가급을 인건비성 비목으로 판단하여 전용을 승인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예산의 이용을 전용으로 처리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예산의 이용은 “항”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항”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 사항이 아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공사의 사장은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2019년도에 서로 다른 “항”에 해당하는 영업비용(710)항과 영업외비용(770)항 간의 예산 변경 사용을 예산의 전용으로 승인하였으나, 이는 예산의 “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으로서 사용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장의 승인만으로 전용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14) 평가급 지급률 결정 통보(2018.12.11.)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이사회 의결(2018.12.21.)까지는 근무일 기준 9일임.

이와 관련하여 공사에서는 사회공헌 행사운영비를 기부금으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사회공헌 사업인 유사성격 사업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예산기본구조 상 서로 다르게 규정된 항인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간 사업을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임의 판단하여 예산의 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사회 의결 없이 사장의 승인만으로 전용한 것은 예산의 적정한 운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시정]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과대·과소 편성된 관서업무비를 적정 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예산편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지출예산별 예산과목이 합리적으로 구분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며, 예산의 변경사용(이용, 전용)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② 예산편성 및 운영과 관련한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관광공사

관 계 부 서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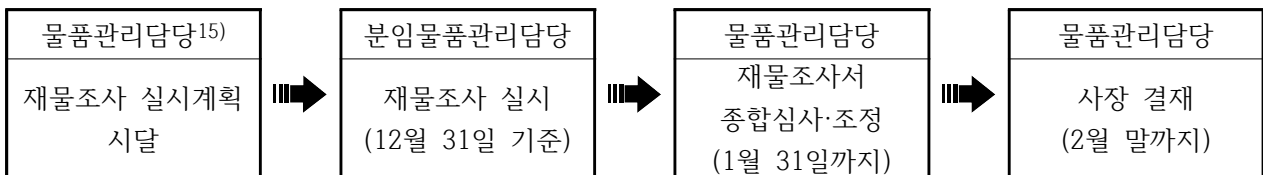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4(물품 관리)에 따르면 공사는 소관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소관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물품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물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정기재물조사 실시 미흡

공사 「물품관리규정」 제42조에 따르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과 대조·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를 [표 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정기재물조사 실시 절차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5) 「물품관리규정」 제5조(물품관리자의 직무와 책임) : 물품관리담당(○실장), 총괄분임물품관리담당(△팀장), 분임물품관리담당(각 팀장), 물품출납원(△팀장), 분임물품출납원(일반물품 : 부서 주무팀장, 사업물품 : 소관 팀장)

또한 「물품관리규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물품관리담당은 재물조사 후 물품의 과부족 원인, 물품의 상태, 불용품 처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과부족 수량이 사무상 착오에 기인함이 명백한 때에는 재물조정승인신청서에 따른 재물조정 승인을 신청하고, 물품관리 담당은 승인 내용을 재물조정결과통보서에 따라 물품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정기재물조사 미실시와 관련한 2018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 기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표 2]과 같이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물조사 기준일인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완료하여

「물품관리규정」과 다른 기준일을 적용한 재물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매년 말일 기준 연간 보유 물품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절한 재물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2】 「물품관리규정」과 다른 재물조사 기준일 적용 현황

(단위 : 개)

구분	재물조사 실시 계획		재물조사 결과 보고			비고
	기준일자	실시기간	보고일자	보고결과(보유현황)		
				기준일자	수량	
2019년도	2019.12.31.	2019.11. 1. ~ 12.31.	2019.12.30.	2019.12.10.	0,000	장부상 수량과 실제수량 차이, 물품 상태 등에 대한 분석 내용 없이 기준일자의 수량만 보고
2020년도	2020.12.31.	2020.11.30. ~ 12.31.	2020.12.28.	2020.12.10.	0,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재물조사는 공사의 모든 물품에 대한 실제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하여야 함에도 공사에서 위탁 관리중인 ○○호텔의 물품에 대하여는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물조사서 서식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물품 목록에 추가, 삭제, 정정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물품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보유 수량의 차이에 따른 조정 여부 및 물품의 상태에 따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재물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미흡 및 실적보고서 미작성

「물품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르면 물품관리담당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표 3]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공사자체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고, 각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매분기마다 분기개시 10일 전까지 분기별 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담당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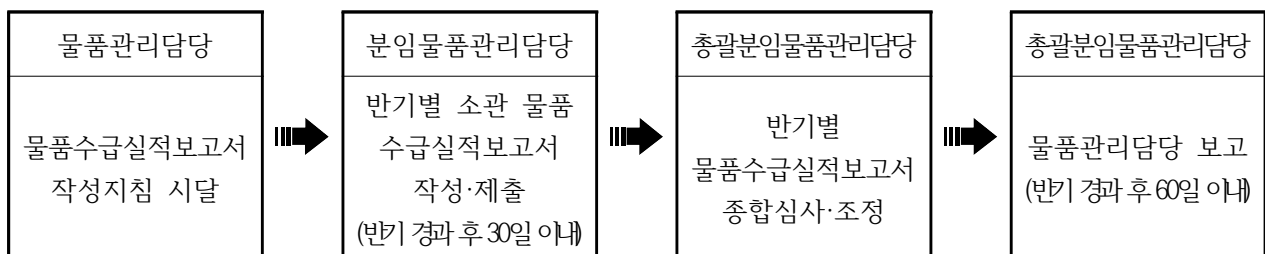
【표 3】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절차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물품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물품관리담당은 [표 4]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각 분임물품관리담당 소관 물품에 대한 수급실적을 매분기마다 보고받도록 정하고 있다.

【표 4】 물품수급실적보고서 작성 절차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공사에서는 물품수급관리계획 미수립과 관련하여 2018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까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2020년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액 범위 내에서의 취득계획만을 반영하여 부서별, 시기별 물품의 취득과 처분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부실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미수립 및 부실 수립으로 물품수급실적 작성 및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물품 정수책정 및 관리 기준 부재

「물품관리규정」 제52조에 따르면 공사 물품관리에 관하여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관련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물품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에 따르면,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 관리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공사의 「물품관리규정」에는 주요 물품에 대한 정수 책정 및 관리 기준과 그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대상 물품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소관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련 법령에 따른 정수 책정 및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정수 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합리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주의] ① 관련 규정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수립, 수급실적 보고에 철저를 기하시어 합리적인 물품 관리 방안을 도모하시기 바라며, 특히 재물조사 시 누락되는 물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물품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한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공사 「물품관리규정」에 물품관련 법령에 따른 정수 책정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 개선 요구

제 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관광공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1. 민원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지방공사를 포함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으로 그 종류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공사의 「민원사무처리규정」(이하 “민원처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 민원처리법에 따라 규정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복합민원을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민원은 법령·훈령·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민원처리규정 제2조에서는 복합민원을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부서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은 법정민원이 아님에도 복합민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처리법에 따라 복합민원이 분류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원처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종결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 민원처리규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는 민원의 불문처리 요건을 규정하며 동일 민원인으로부터 동일내용의 민원서류가 2회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접수된 경우 1차에 한하여 민원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복민원에 대한 불문(종결)처리 요건을 민원처리법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사 민원처리규정 제17조에 따르면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2015. 8. 11. 전부개정(2016. 2. 12.부터 시행) 시 법률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되었음에도 공사 민원처리규정에서는 개정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2. 사이버민원 처리기간 설정 미흡

민원처리규정 제8조에 따르면 사이버민원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사이버민원실 운영시행내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 「사이버민원실 운영 시행내규」(이하 “사이버민원내규”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되는 각종 제보사항의 접수, 처리 및 통지 등에 대하여 사이버민원내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 따르면 제보사항의 처리기한은 민원의 성격 및 업무의 유형에 따라 처리부서로 이송된 때로부터 단순민원은 3근무일 이내, 일반민원은 5근무일 이내, 복합민원은 7근무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공사에서 제출한 2018년 7월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의 민원처리현황 자료(000건)는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항으로 이는 민원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사이버민원내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이버민원내규에는 민원 유형에 대한 정의가 없이 민원 유형별 처리기한만을 설정하고 있어 민원 접수 시 처리기한 설정을 위한 객관적 분류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사이버민원내규 제13조에 따르면 사이버민원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원처리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규정 제17조에 따르면 민원사무처리기간은 민원처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사이버민원내규를 적용하는 제보사항(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제보사항(민원) 유형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민원처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을 준용해야 함에도 민원 유형을 임의로 설정하여 [표]와 같은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표】 유형별 민원 처리 사례

(단위 : 개)

구분	제목	접수일자	처리일자	사이버민원내규에 따른 분류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분류		
				유형	처리기간	지연기간	유형	처리기간	지연기간
2018년	ㄱ	2018.10.27.	2018.11.16.	복합민원	7일	15일	고충민원	7일	15일
2020년	ㄴ	2020.11.10.	2020.11.11.	일반민원	5일	-	기타민원	즉시	1일
2020년	ㄷ	2020.12.31.	2021. 1. 4.	일반민원	5일	-	기타민원	즉시	2일
2021년	ㄹ	2021. 1.11.	2021. 1.18.	복합민원	7일	-	기타민원	즉시	6일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주의] 민원 관련 법령에 따른 확실한 유형 분류 및 처리기간 설정으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을 실시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공사 민원 규정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철저히 비교·검토하여 법령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직인 관련 대장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관광공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인관리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직인을 등록·재등록·폐기할 때마다 별지로 정하는 직인대장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하며, 매년 2월 1일 현재 직인의 인영을 별지로 정하는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직인대장 및 인영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감사일 현재 공사에서는 직인대장의 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직인 변동사항에 따른 정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직인의 인영부에 대한 보유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감사대상기간 매년 2월 1일 현재 기준 인영 보존의 적정성도 확인할 수 없어, 직인 관련 대장의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시정] 감사일 현재 보유 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대장에 대한 보유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적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직인 관련 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직인 관리에 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통보(시정완료)

제 목 제1종 시설물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관광공사

관 계 부 서 □단

내 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시설물 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시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관광공사에서는 [표]와 같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체계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하여 취합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업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중의 안전 확보 기여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제1종 시설물 현황

위 치	건물명	규 모	연면적(㎡)	주용도	사용승인일	비고
연수구	ㄱ	지하1/지상4	54,128.79	문화 및 집회시설	2008. 7.28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관광공사사장은

[통보] ① 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1. 3. 22.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을 통해 2021. 3. 25. 승인완료를 하였으나,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② 연도별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 상태별로 정기적 시기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점검 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 등 관리자로서 의무에 만전을 기하여 시설물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통보(사업완료)

제 목 지역축제 추진 관련 문화재 보호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광공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르면 지역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을 방출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관광공사에서는 [표]와 같이 지역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행사진행(부대행사)에는 먹거리장터(푸드트럭 등) 및 불꽃놀이 등이 구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화학물질 및 열·소음 등을 방출하는 행위가 발생함에도 지역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영향성 검토를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득하지 아니하고 축제를 추진하였다.

동 축제의 목적이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궁극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 축제 해당지역의 문화재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축제 진행상 내용의 충실성 및 진행 시 안전 사고 방지 사항에 전념하여 지역문화재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문화재주변 지역축제 추진 현황

축제명	위치	축제기간	지역문화재	비고
ㄱ	강화읍	8.18	강화갑곶돈(사적 제306호)	
ㄴ	강화읍	(1) : 7.20~21 (2) : 9.14~15	용흥궁(시 유형문화재 제20호) 김상용 순절비(시 기념물 제35호) 강화 고려궁지(사적 제133호)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사적 제424호)	
ㄷ		6.28~29		
ㄹ	중구	9. 8~9	구)제물포구락부(시 유형문화재 제17호) 구)인천일본제1은행지점(시 유형문화재 제7호) 구)일본제58은행지점(시 유형문화재 제19호) 구)인천일본제18은행지점(시 유형문화재 제50호) 청·일조계지 경계계단(시 기념물 제51호)	
ㅁ		(1) : 6.15~16 (2) : 9.21~22		
ㅂ		(1) : 11.14~15 (2) : 온라인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관광공사사장은

【통보】 ① 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축제가 성공리에 종료된 사실이 있고,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확보 등의 성과는 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② 향후 문화재 지역주변에서 축제를 추진할 경우, 문화재영향성 검토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축제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관광공사

관 계 부 서 □단

내 용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에 따르면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ㄱ공사”에 대한 설계 및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원가계산 산정 시 이윤율 약 00.000%인 0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이윤 산정율 기준 15%인 0,000,000원 대비 00,000,000원을 과다 설계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 준공 시 보험료 등 간접비를 정산함에 있어 일괄 정산하여야 하는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일반관리비와 부가가치세만을 정산하고 이윤에 대하여는 정산절차 없이 준공 정산하였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공사는 예정가격 등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재조정 등을 통해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사업 부서로부터 계약 요청된 그공사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서 정한 적절성과 적법성에 대한 확인·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오류 계상된 설계금액인 00,000,000원을 기초 금액으로 확정 입찰공고(2018. 11. 20.~11. 28.)를 실시, 입찰참가 1순위 업체인 ○○○○○(주)와 계약금액 00,000,000원으로 2018. 12. 3. 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준공(2019. 2. 27.)된 후 해당 사업 감독부서의 준공검사 결과(준공검사일 : 2019. 3. 4.)에 따라 면밀한 정산금액의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준공처리금액 00,000,000원을 지급하여 약 0,000,000원에 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관광공사사장은

[주의] 향후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 시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직원 직무교육 등을 통해 동일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인천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

【수범사례】

1

코로나19 대응, 안전 채용 방역 철저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대책 마련을 통한 안전한 채용 진행
- ❖ 사업의 원활한 추진 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추진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채용시험 응시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통한 감염 확산 예방 및 안전 채용 진행
- 청년·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 등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추진내용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채용 방역 대책” 마련
 -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을 활용한 대규모 고사장 마련, 2m 거리두기 준수, 전체 방역소독, 발열체크, 손소독제·마스크 등 위생 물품 제공, 지원자·감독관·운영위원 등 전원 마스크 의무 착용,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유관기관(보건소) 협조체계 구축 등
 - 별도 고사실 준비 및 유증상자 분리 응시를 통한 안전한 응시생 관리
 - * 정규 시험실 응시생과 별도 시험실 응시생의 입실 동선 분리 관리



2020 정규직 채용 필기시험 [송도컨벤시아]

○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

- 인력추이 분석을 통한 결원 보충 및 육아휴직 빈자리 정규직 채용
- 장애인 등 취업 취약자 고용 확대

□ 추진실적

○ 철저한 방역체계를 통한 안전한 채용 시험 성공적 마무리

- 채용 시험장 내 확진자 미발생
- 시험 종료 후 별도고사실 응시자 코로나 검사 안내 및 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 (음성판정)
 - * 응시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방역시스템 및 코로나 관련 사후문자 안내 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대한 긍정적 반응 (“코로나 극복 위한 인천의 의지를 느낄 수 있어 안심”, “방역관리가 가장 우수했던 기관” 등)

○ 코로나19에도 채용 규모 유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 정규직 채용을 통한 청년 취업기회 확대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14명)
- 장애인(1명) 및 취업지원대상자(2명) 채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

□ 기대효과

○ 송도컨벤시아, 코로나 방역 최적 안전한 채용시험장으로 활발 운영

- 2020년 인천환경공단, 해양경찰청,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등 기관 필기시험 및 면접 진행 완료(총26건)
- 2021년 극지연구소, 농협 등 필기시험 및 면접 진행 완료(4건) 및 기업 채용시험 예약 진행 중 (6건)

○ 지역사회 방역 및 대응 능력 강화 기여

- 수험자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 및 안전확보,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에 따라 인천시 코로나 극복 및 예방에 기여

- ❖ 인천 주도의 국제 트래블 마트 개최를 통하여 국제 관광산업 분야에서 인천을 부각시키고 관광도시 인천 인지도 제고에 기여
- ❖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해외마케팅 불가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외 관광업체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신규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을 통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

□ 추진목적

-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 박람회, 설명회, 세일즈 콜 등 해외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으로 국내·외 관광업체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마케팅 추진
-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트래블마트 개최로 비대면 비즈니스 신모델 구축 및 인천 관광상품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바운드 시장 선제적 대응 추진

□ 추진내용

- 2020 인천 국제온라인트래블 마트 개최
 - 일시/장소 : 2020.10.27.(화) ~ 10.29.(목), 송도컨벤시아
 - 형 태 :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
 - 주요 내용 : 인천관광 온라인 홍보관 운영(VR 투어존), 온·오프라인 웹세미나 개최 및 B2B 상담

□ 추진실적

- 온·오프라인 B2B 상담
 - 규모 : 총 126개 업체 참가(국내 34개 업체, 해외 15개국 92개 업체)
 - 비즈니스 상담 268건
 - 화상상담시스템(Uprism) 활용 비대면 온라인 상담 및 현장 1:1 상담

○ 온·오프라인 웹세미나

- 규 모 : 인천관광국내파트너 28개사 관계자 등 약 50명
- 형 태 : 인천관광공사 공식 유튜브를 통한 현장 세미나 생중계
- 유튜브 생중계 국문 451회, 영문 229회 조회(2020.10.26.기준)

○ 인천관광 온라인 홍보관

- 규 모 : 인천 주요 관광지 18곳 VR 투어존 운영
- Incheon & Partners 활용 인천관광 및 트래블마트 참가기업 홍보

○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 설문기간 : 2020.11.9.(월) ~ 11.29.(일), 20일간
- 설문대상 : 인천국제트래블마트 국내 참가업체 34개 업체
- 설문결과
 - (국내) 행사참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7점(5점만점)
 - (해외) 행사참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4.5점(5점만점)

□ 기대효과

- 해외 신규 파트너 발굴 기회 제공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으로 국내외 관광업계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오프라인 인천형 관광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견고한 관광 기반 설립

- ❖ 비대면 시대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도시 인천 인지도 제고 및 코로나19 종식 후 인천 방문 확대 기틀 마련

□ 추진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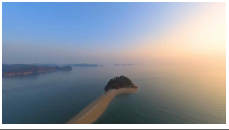

- 디지털 뉴딜정책에 맞춰 인천테크노파크(ITP)와 협업으로 VR공모전 당선작 및 연계 업체 콘텐츠 활용을 통한 대외홍보 강화
- 인천관광포털 인천투어 內 VR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인천관광 VR 콘텐츠 제작 도입 및 확대 >

신규 사업검토 및 도입	공모전 활용 VR콘텐츠 제작	21년도 예산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뉴딜 정책에 맞춰 VR사업 신규 도입 검토 인천테크노파크와 VR 공모전사업 협업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VR 공모전 당선작(4억) 연계 VR 콘텐츠 제작 활용 인천투어 내 VR랜선여행 온라인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3억 확보 테마별 인천 대표 VR콘텐츠 제작, 홍보 강화

- 인천테크노파크 연계 협력을 통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VR콘텐츠(37개) 재가공·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대리만족 인천여행 서비스 제공

업체명	내용	
트리플 (14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VR: 기차를 타고 과거로 개항기 역사 여행 (인천역, 알렌별장, 조선인촌회사 등) 실사VR: 굴업도 풍경 위주 실사영상 	
이노테크미디어 (20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사VR: [인천관광 100선 활용] 랜선여행 - 주요관광지 360°VR (선재도, 아라뱃길 등) 	
아인픽처스 (3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VR: 타임머신 타고 과거 개항장 일대 역사여행 (차이나타운, 제물포구락부 등) 	

- 인천관광포털 인천투어 內 VR통합페이지 메뉴 개편으로 직관성 제고



□ 기대효과

- VR체험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적인 비대면 인천여행 서비스 제공하여 관광도시 인천 인지도 제고
- 다양한 인천의 VR콘텐츠를 통해 인천 관광지에 관심을 이끌어 코로나19 종식 후 인천 방문 유도

- ❖ 코로나19 이후 MICE 산업의 변화를 반영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를 통해 국내 MICE 고객 및 관계자 대상 인천 MICE 경쟁력을 소개
- ❖ 흥미로운 온라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참가자 참여형 이벤트 구성을 통해 인천 MICE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유도 및 선호도 제고

□ 추진목적

- 코로나19 이전의 대면 마케팅(찾아가는설명회, 팸투어, 답사 등) 추진 어려움에 따른 비대면 마케팅 전략 마련
- 다양한 형태의 유치마케팅 및 홍보를 통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 가능한 행사 수요 창출 및 시장 본격 회복 대비 유치 기반 확보

□ 추진내용

- 1차 인천 MICE 온라인 설명회 개최(9.23.)
 - ‘안전하고 편리한 MICE 온앤오프’ 라는 주제로 설명회 기획
 - 전문가 토크쇼, 지원제도 소개, 인천 MICE 메뉴 브이로그로 구성
- 2차 인천 MICE 온라인 설명회 개최(12.2.)
 - ‘인천 MICE 방송’ 을 테마로 설명회 기획
 - 복합리조트 현황, 인천 MICE 얼라이언스 소개,
인천MICE버라이어티쇼 등 1차 설명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시간 소통 프로그램 대폭 편성

□ 추진실적

○ 참가규모

구 분	사전등록	총 시청자(최대 동시 시청자)	영상 조회수
1차 설명회(9.23.)	1,042명	1,330명(450명)	3,200회
2차 설명회(12.2.)	589명	770명(300명)	2,000회
합 계	1,631명	2,100명(750명)	5,200회

○ 신규 마케팅 활동을 통한 국내 진성바이어 발굴

- 국내 컨벤션, 기업회의 등 MICE 바이어 총 525명 발굴

* (1차) 250명, (2차) 275명

○ MICE산업신문 메인화면 기사 노출 및 높은 참가자 만족도(2회 평균 97.2%)

○ 인천 MICE 얼라이언스 협업 및 공동마케팅 강화

- 인천 MICE 초대석 등에 지역 MICE 관계자 직접 출연 홍보
- 인천 MICE메뉴 브이로그, 인천 MICE 얼라이언스를 통한 홍보 확대 등

○ MICE 관계자 네트워킹 강화

- 실시간 Q&A, 퀴즈 이벤트 등 참가자 참여형 프로그램 편성을 통한 MICE 관계자 네트워킹 강화

□ 기대효과

○ MICE 주최자 의견 수렴을 통한 마케팅 및 홍보 추진

○ 만족도조사 결과 및 실시간 의견을 바탕으로 21년도 설명회 기획

○ 확보된 참가자 DB를 활용하여 국내 MICE 틈새시장 수요 발굴 및 맞춤형 유치 세일즈 실시

- ❖ MICE 행사장 및 지역 내 문화 · 공공시설 대상 출입인증시스템 및 방역지원을 통해 방문객의 안전한 관람 지원

□ 추진목적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행사 및 관람 위축에 대응 행사 주최자, 시설운영자, 참가자 등의 요구를 반영한 출입인증 · 방역체계 구축 필요
- 방역체계 적용 대상에 MICE 행사 외 문화 · 공공시설을 포함시켜 효과 확대

□ 추진내용

- 사업명 : 클린MICE인천 운영사업
- 사업내용 : 모바일 출입인증(QR코드) 서비스 제공, 방역비 지원
 - *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자체 출입인증시스템 개발
- 적용대상
 - 지역 내 MICE 관련 인천주최, 주관 행사 및 인천지역 개최 행사
 - 지역 소재 문화·공공시설 30개소
 - * 트라이보울, 아트플랫폼, 인천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등

□ 추진실적

- 클린MICE인천 운영계획 수립, 관련예산 확보('20.4월 ~ 5월초)
 - * MICE 유치마케팅 예산 등 감액 조정을 통해 약 1.5억원 필요 재원 편성
- 모바일 출입인증시스템 개발('20.5월말)
- 출입인증 서비스 및 방역비 지원('20.5월말 ~ 12월)
 - (출입인증 서비스) 총 164,940명 이용
 - * 문화 · 공공시설 30개소 150,240명 / MICE행사 17건, 14,700명
 - (방역비 지원) 총33개소, 약 6천만 원 지원

□ 기대효과

- 코로나 시대 안전하고 편리한 행사 개최지로서 도시 이미지 제고
- 문화 ·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市 방역정책 지원

6

인천시티투어 비대면 발권 도입

- ❖ 코로나 19 대응 비대면 결제·발권시스템 도입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체계 구축

□ 추진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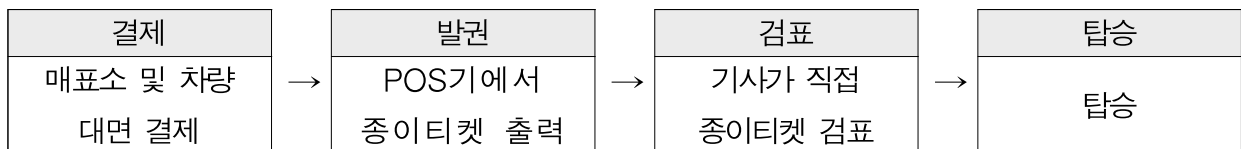
- 기존 방식은 종이 티켓을 통한 발권 방식으로, 매표원 및 운전기사와 대면 접촉이 불가피하여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신규 발권방식 도입 필요
- 비대면 결제·발권 시스템 도입을 통한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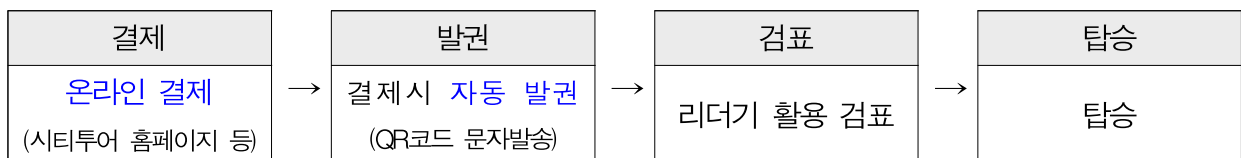
-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발권시스템 구축
 - 온라인 결제 및 발권절차 간소화를 통한 대면 접촉 최소화
 - * 결제-발권-검표 전체 단계에서 모바일 활용성 강화
 - * 온라인 결제 및 발권 시, 티켓 확인자와의 대면 기회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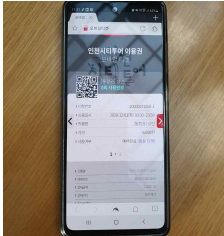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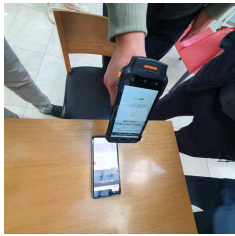
- 결제 및 발권 절차 비교

(당초)





(변경)



기존	변경	
		
종이티켓 발권	모바일 티켓 활용 발권	

-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를 통한 비대면 예약·발권 활성화
- 인천시티투어 홈페이지 및 ‘네이버 예약’ 연동 티켓 판매

온라인 판매 채널	
	
인천시티투어 홈페이지	네이버 예약 플랫폼

□ 기대효과

- 대면접촉 최소화를 통한 코로나 19 대응 및 안전한 환경 마련
- 운영재개 시점 비대면 예약·발권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시티투어 이미지 구축

※ 他 지자체 시티투어 비대면 예약·발권 도입 현황

순번	지역	서비스명	도입여부	발권방법	비고
1	서울	서울시티투어 (타이거버스)	미도입	매표소 및 기사에게 구매	-
2	서울	서울시티투어 (노랑풍선시티투어)		매표소 및 정류장 구매	-
3	부산	부산시티투어		현장 기사에게 구매	-
4	대구	대구시티투어		현장 기사에게 구매	-
5	제주	제주시티투어	도입	제주관광 통합 예약 사이트 ‘탐나오’ 예매	2018년 도입

- ❖ 중앙정부(문체부, 복지부) 의료관광 공모사업 참여 및 국비 확보를 통하여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도시, 인천’ 위상 제고
- ❖ 3년 연속 국비 확보 금액 ‘전국 1위’ 달성, 매년 사업규모 확대 및 의료관광객 유치 강화로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목적

-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특화 의료기술 지원을 통하여 인천을 찾는 외국인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 사업대상 :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의료기관(76개) 및 에이전시(45개)
 - 사업내용
 - 타깃 시장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거점 발굴 및 지원
 - 비대면 마케팅(박람회, B2B상담, 온라인 플랫폼 활용)홍보 다변화 추진 등
 - 지역 대표 의료기술 및 유치역량강화 사업 추진

□ 추진실적

- 지자체 대상 국비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2018 ~ 2020년)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 의료관광클러스터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 지역특화의료 기술 및 유치역량강화

※ 공모사업비 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비 고
		소계	국비	시비	민간	소계	국비	시비	민간	
2018년	1,304	854	200	654	-	450	220	110	120	문체부 공모 2위 복지부 공모 2위
2019년	1,650	1,175	300	875	-	475	175	120	180	문체부 공모 2위 복지부 공모 1위
2020년	1,785	1,275	400	875	-	510	140	160	210	문체부 공모 1위 복지부 공모 1위
계	4,739	3,304	900	2,404	0	1,435	535	390	510	

○ 외국인환자 대상 마케팅 강화에 따른 유치 실적 상승

※ 연도별 인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2016	2017	2018	2019*	2020(미공표)
12,992명	14,572명	17,760명	24,864명	'21.5월 공표 예정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2020.7.6. 매년 공표)

○ 인천시, 『2020 메디컬코리아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20. 10월)

-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 조성 및 편의 증대에 기여

□ 기대효과

-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 향후 매년 25% 성장 전망에 따라,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쇼핑, 숙박 등 지역관광·경제 파급효과 제고 기여
 - 최신 관광 트렌드인 웰니스관광과의 융복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 지역 유치업계와의 협력·지원, 의료관광 인재 양성 등을 통한 지역 상생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온택트) 페스티벌 개최
- ❖ 온라인 콘텐츠 강화를 통한 지역 축제 활성화 및 지역 관광 명소화
 - * 코로나19 이후 관광 욕구 자극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효과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대면 행사 취소·연기 권고 조치 등으로 축제이벤트의 파급·홍보효과 고려, 방역지침 반영 비대면 전환 추진
 -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2판, '20.2.26.)」

- 정부·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중 시급성, 필요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이벤트행사 연기** 또는 **취소**
- 코로나19의 **감염전파 가능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
-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판 개정안(중수본, 2.26)」 및 본 지침 등에 따른 **방역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 실시

□ 추진내용

- 인천개항장문화재야행 :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 랜선야행(온라인) 및 개항장 오픈스튜디오 등 신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 문화재 활용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기획, 실시간 방송 송출
- INK콘서트 및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 온라인 개최
 - 인천 대표 축제 명성 유지 및 음악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축제 개최 시 인천시 및 인천관광 홍보 영상 지속 송출
- 지역특화관광축제 : 경관조명 및 지역상권 홍보 온라인 콘텐츠 제작
 - 대면행사 축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운영

□ 추진실적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계획과 지역 침체 방지 균형 노력

- 방역게이트 설치, 손소독 및 체온측정, 출입자 명부 관리, 실시간 소독 등
-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 관람객 밀집방지 및 방역 준수 프로그램 운영
 - * 체험프로그램 분산 배치, 도보탐방 사전예약제 도입, 행사장 거리 확장 등
 -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LED우산배포, 체험프로그램 진행 시 아크릴판 설치 등



* 지역경제 침체 방지를 위한 최소 현장운영('19년 15만4천명 → '20년 1만8천명)

- (INK콘서트) 비표운영을 통한 현장인원 100명 미만 통제 등

○ 축제이벤트 온라인 개최 주요 성과

- 온라인 관객 수

구 분	온라인 관객수(조회수)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78만명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	33만명
INK콘서트	1,162만명
지역특화관광축제	4.9만명
합 계	1,277.9만명

-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 온라인 콘텐츠 강화를 통한 관람객 만족도 제고

* 대면 프로그램 최소화 운영에도, 2020년 관람객 만족도 전년대비 약 12.8% 증가

구분	2020	2019	2018
핵심 프로그램	문화재 경관조명 및 개항장 오픈스튜디오	3·1운동 100주년 기념 콘텐츠	Origin Incheon
관람객 만족도	6.22점	5.6점	5.71점

○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강화

-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온라인 관람객과의 쌍방향 소통 진행

* 펜타마니아(600명)의 실시간 댓글, 인터뷰 등 적극적인 온라인 축제 참여 유도

- (INK콘서트) 약 50명의 해외 K-POP 팬과의 비대면 소통 진행

* 국내 아티스트와 약 50여명의 해외 K-POP팬과의 실시간 소통 진행

-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 지역상권 홍보 온라인 영상 콘텐츠 166편 제작·송출 및 상시 방문유도

* 개항장 일대의 문화재 및 문화시설 소개 및 홍보

- (지역특화관광축제) 지역 상인 홍보 콘텐츠 제작

* 지역 주요 상권 44개 점포 참여로 총 45편의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기대효과

○ 대면행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비대면 축제이벤트 개최를 통한 관광도시 인천 홍보 강화

○ 온라인 콘텐츠 운영을 통한 문화재 인식제고, 개항장 지역 명소화 노력, 잠재 관광객 유치 강화

- ❖ 치안 및 안전에 대한 對국민 인식제고
- ❖ 코로나19로 막힌 국내 치안산업 강소기업들의 판로개척 지원
- ❖ 온라인전시회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인천 MICE산업의 경쟁력 제고

□ 추진목적

-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전시회 개최의 어려움 직면(취소 검토)
 - 대규모 기업, 참관객이 참석하는 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 불가
 - 해외바이어/참관객의 입국 불가로 수출상담회 개최 불가
 - 전시회 개최에 따른 직간접적인 공공이익 창출 불가
- 전시회 개최 약 1달 전, 온라인 전환개최로 계획 변경

- [1차 조정, 4月] 오프라인 전시회 취소 잠정 결정
- [2차 조정, 6月]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개최방식 변경 결정
- [3차 조정, 9月] 참가자 안전 고려, 오프라인 전시회 취소 및 온라인 전시회 단독개최 결정

- 온라인전시회 개최를 통한 ‘치안산업발전’ 과 ‘치안인식확산’ 동시기여

- [치안산업발전]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 판로(온라인전시회) 제공으로 기업 및 산업 발전 유도
- [치안인식확산] 첨단/지능범죄의 증가로 인해 범죄예방의 중요성 등 치안인식 확산 필요

□ 추진실적

- 국내 유일 경찰청 박람회, 온라인전시회+컨퍼런스+수출상담회 개최
 - 온라인전시회(2020.10.21. ~ 12.31.)
 - * 참가규모 : 114개사 114부스(경찰기동장비&드론, 경찰CT, 경찰개인장비 등)
 - * 실시간 B2B 상담이 가능한 ‘라이브상담’ 기능 추가 및 온라인 ‘공익캠페인’ 실시 등
 - 온라인컨퍼런스(2020.10.21. ~ 10.24.)
 - * 5개 웨비나(온라인 컨퍼런스) 동시개최 및 라이브 송출
 - 온/오프라인 연계 수출상담회(2020.10.21. ~ 10.23.)
 - *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 박람회 자체 수출상담회 2-Track 운영

○ 주요 추진실적

구분		실적	비고
온라인 전시회	참가기업 수	114	
	참관객(접속자) 수(10/21~12/31)	78,437	전년대비 367% ↑
	LIVE 상담 건수(10/21~10/23)	440	
온라인 컨퍼런스	접속자 수(10/21~10/24)	2,390	국제CSI컨퍼런스 등 5개 웨비나 개최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박람회 주최 (10/22~10/23)	상담건수	193
		상담액(\$)	87,540,000
	KOTRA 주최 (10/21~10/27)	상담건수	136
		상담액(\$)	53,543,000
	계 (상담건수)		329 전년대비 50% ↑
	계 (상담액(\$))		141,083,000 전년대비 69% ↑

※ (참고) 추진실적 주요 사진



온라인전시회 시연회



온라인전시회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온라인컨퍼런스



경찰청 감사장

□ 기대효과

- (인천 MICE산업 고도화) 인천 주최 전시회의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통한 인천 MICE산업 경쟁력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로 해외수출판로가 막힌 기업에게 대체 판로 제공으로 지역경제 및 치안산업발전에 기여